

SNS 공유·초판본 인기... 詩가 읽힌다

올 시집 판매 작년보다 79% 늘어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4권이나 올라
 방송 노출 영향·'필사' 콘텐츠 유행
 20~30대 젊은 시인들 눈부신 약진

시집이 팔리고 있다. 출판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소설도 아니고 시가 팔리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 비해 비유와 수사, 이미지로 형상화된 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다. 그러나 시집이 팔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이 독자들의 기호와 부합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상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회적 관계망(SNS)의 확산과 무관치 않다. 영상과 결부될 수 있는 최적의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타 장르에 비해 SNS를 매개로 소통이 가능하다. 일반인들도 자신이 쓴 시를 페이스북 등에 올려 다른 이들과 시를 공유한다.

에스24에 따르면 올해(1월~4월) 시집 판매량이 작년 대비 총 79.22% 증가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2015년에는 시집이 한권도 없었지만 올해는 4권의 시집이 순위에 올랐다. 김성광 문학 담당자는 "시집 판매의 증가는 OtvN '비밀독서단'이나 KBS 'TV, 책을 보다' 같은 방송 노출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필사' 콘텐츠로 시의 유효성이 한 측면"이라고 했다.

또한 올 초 불었던 초판본 열풍도 빼놓을 수 없다. 출판사 소와다리가 펴낸 김소월의 '진달래꽃', 운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백석의 '사슴' 등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특히 운동주의 시집은 영화 '동주' 효과와 맞물리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이한 점은 초판본 시집의 주요 구매자가 20대와 30대라는 사실이다. 젊은 세대들이 시를 읽는 것은 침체된 문학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복고 열풍'과 맞물려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일반적으로 시는 읽히지 않는다는 통설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

면 읽히지 않은 게 아니라 시집이나 시산문집을 찾는 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니다."

문학과지성사 시집 담당 편집자 이근혜씨는 "상반기에는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시인들의 초판본의 복간작업이 두드러진 면이 있다"면서도 "문지 시인선 시집들 가운데는 중견 시인이나 젊은 시인들의 시집이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복 '뭉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 황지우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와 심보선 '슬픔이 없는 심오 초', 나희덕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등은 독자들이 즐겨 찾는 시집들이다.

그뿐 아니라 20대 후반과 30대의 젊은 시인들 약진도 눈부시다. 이례적으로 10세 이상을 찍은 이이체 시집 '죽은 눈을 위한 송가', 80년대 생 시인 유희경의 '오늘 아침 단어' 등의 부상은 시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민음사에서는 서운후 시집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이 중세를 했고, 20대인 황인찬 시집 '희자의 세계'는 작년 9월 출간 이후 1만부 이상 팔렸다. 이들은 1980년대 출생한 이들이 이전의 선배들과는 변별되는 감각으로 색다른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문학동네에서는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시인들의 시집이 강세다. 이문재·안도현·장석남 시인들의 시집이 꾸준히 나가고 있다. 또한 30대 초반의 박준 시인의 작품집도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20세를 찍을 만큼 상승 추세다.

시 전문 에디터이자 시집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펴낸 김민정 시인은 "시집이 꾸준히 나가는 것은 독자들마다 좋아하는 시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기 시에 대한 긴장감을 견지하는 중견시인들과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시인들의 팽팽한 균형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작과비평사에서는 송경동 시인의 시집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희망버스' 기획자로 알려진 송 시인은 시집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가 중세를 거듭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의 시집은 금수저와 은수저, 흡수저로 대변되는 오늘의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잔잔한 울림을 남기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뿌리깊은 나무회' 초대전

30일~8월 21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 오승운 작 '금강산'

미술단체 '뿌리 깊은 나무회(회장 이 사범)'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천개의 탑'을 주제로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시를 연다.

'뿌리 깊은 나무회'는 광주시범학교와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미술부 출신 작가로 구성된 미술단체이다. 조선대 교수였던 오지호 화백은 1959~1960년 조대 부속고에서 오승운, 송용, 홍진삼, 강연규, 김인화, 임병규, 지광준, 최상중, 박동인, 배동환 등에게 소묘와 수채화를 가르쳤다.

당시 조대 부속 미술반은 전국 미술실기대회에서 단체상, 최우수상 등 큰 상을 휩쓸었다. 이후 50여 년 동안 전국 고교 가운데 가장 많은 미술가 200여명을 배출하며 미술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는 작고한 초창기 멤버부터 현재에도 활발히 활동 중인 회원 70여명

이 참여해 지역 미술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자리다. 아름다운 색채로 남도를 표현했던 오 화백을 사사한 이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제자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

오 화백의 아들인 고(故) 오승운 작가가 그린 '금강산'은 빨강, 파랑, 주황 등 원색으로 단순화시킨 산봉우리를 표현한 게 특징이다. 강행원 작가는 한적한 시골풍경을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묘사한 한국화 '탑전'을 선보인다. 박은용 작가는 민중미술 시각에서 수목담채로 농사 풍경을 담은 '추수'를, 송용 작가는 공중에 떠있는 파란 새를 통해 이상향을 표현한 '시.공.새'를 출품한다. 개막식은 8월2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539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 예술과 함께하는 한여름밤 캠프

소촌아트팩토리 29~30일 소촌공단서 '아트캠핑'

캠핑 피어와 라인댄스를 즐기면서 여름밤 낭만을 만끽하는 특별한 캠핑이 소촌공단에서 열린다. 소촌아트팩토리는 문화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캠핑@소촌'을 29~30일 이틀간 진행한다. 물축제, 도담도담 예술학교, 유기능 음악회, 별밤 캠프 등으로 구성된 행사다.

행사는 29일 오후 5시 '개구쟁이 물축제'로 문을 연다. 이어 유기능 음악회에서는 김수진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 색소폰 공연, 재즈밴드 앙리머스 공연, 우쿨렐레 합주 등을 즐길 수 있다. 도담도담 예술학교가 마련한 부스에서 캐리커

처,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밤 9시부터는 소규모 캠핑피어와 함께 통기타 공연이 열리는 '별밤캠프'를 진행한다. 공연자뿐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거나 연주 할 수 있는 아역객도 무대에 오를 수 있다. 또 태이움직임연구소가 가족과 라인댄스를 배우며 소통하는 소셜파티를 진행한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개구쟁이 물축제'와 산단단지 플리마켓 '럭키장터'가 열린다. 캠핑 참여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텐트는 유료로 빌릴 수 있다. 문의 062-960-36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물이 들려주는 마한 이야기 국립나주박물관 8월 2일~13일 여름방학 프로그램

국립나주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8월2일부터 8월13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마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나라의 보물, 국보 이야기'(8월2·9일 오후 2~4시)는 국보여행 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보드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국보와 보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톡톡톡, 내가 꾸미는 마한 이야기'(8월3·10일 오후 2시~3시30분)는 마한 유물이야기가 담긴 가방을 꾸며보고, '반짝 반짝, 돌날 속 보물찾기'(8월5·12일 오후 2시~3시30분)는 커다란 고분 속 돌날에 들

어 있던 보물들을 알아보고 유물 액자를 만들어 본다. 또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 연계프로그램 '나는 미래의 보존과학자!'(8월3·10일 오전 10시30분~12시30분, 13일 오후 2~4시)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박물관에서 캠핑을 하며 역사도 배울 수 있는 '1박2일 달빛 역사여행'도 8월 4~5일, 11~12일 운영한다. 매회 10개 가족을 대상으로 야외체험장(캠핑장) 5대·텐트 5동)에서 캠핑을 한다. 각 프로그램별로 박물관 홈페이지(naju.museum.go.kr)에서 선착순 접수 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1-330-78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달빛 고분산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 *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제2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6년 8월 15일(월)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 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가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